

하나님께서서는 정의에 관심이 있으신가?

여러분의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큰 질문(big question)에 대해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하나님께서서는 정의에 관심이 있으신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은, “있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
제가 이 답에 대해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은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보다 정의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라디오나 TV 뉴스, 신문,

인터넷 등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범법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가정적인 일로,

민족과 국가적인 일로, 또, 국제적인 일로,

수많은 범죄와 범법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제가 왜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 하냐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토론 주제 중 하나는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의에 대해

온전히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줍니다.

여러분은 “그거 좀 이상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곳이잖아요”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독생자를 못박은 곳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고통 받고, 이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을 심판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독생자 말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제가 기분이 엉망인 채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어떤 일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된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죄와 벌의 연결고리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중한 죄를 지으면 중한 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실 영생토록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범인이 피고석에 앉아있고

유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장에게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좋아요.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라?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신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실렸다면 당신은

“불공평하다! 부당해! 신성한 법정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놀라울 정도로 자비로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통 받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잘못을 벌하지 않고
넘어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정의를 이루고, 지키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정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자비롭고 놀라운
사랑의 증거와

정의의 구현을 동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증거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를 지키신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미래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기쁜 날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정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모든 인류가 왕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 삶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하고,

그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심판자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토록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따르는
손실을 따져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것의
득실을 따져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르지 않았을 때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로서, 제자로서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값을 영원토록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개개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용서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사면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불비용을 계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팔에 안겨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